

2005년 경제전망

- 주요 경제 연구기관의 전망을 중심으로 -

04년 우리경제는 유가의 급등, 중국경제 급성장과 달러화 가치 하락 등 여러 대외적 요인과 함께, 국내적으로 내수경기의 침체 속에서 수출이 급증하여 성장을 이끌어가는 양극화 성향이 심화되었고, 경제적 불안에 따른 위축심리로 민간소비는 더욱 축소되었으며 노사 갈등, 실업률 증가, 정부의 경제부양책에 대한 논란 등 복잡다난한 문제들과 부딪혀야 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05년에도 여전히 우리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05년 우리의 경제는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국내 유수 경제관련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자료들을 정리, 종합해 보았다.

1. 세계 경제

국내의 주요 경제 전문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05년 세계경제는 성장률 둔화 기조이다.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미국경제는 쌍둥이 적

자 문제 등으로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 경기침체에서 회복을 보이던 일본의 성장세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서부 대개발과 올림픽 관련 투자 등으로 내수 경기의 급랭 가능성은 매우 낮고 경기 과열이 진정기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실업문제 등의 구조적인 문제와 유로화 강제 영향 등으로 2% 내외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경제연구원들은 예측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하락은 국제유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수준과 변동성에 의해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국제유가의 향방은 05년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증가세 둔화는 국제유가의 안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LG연구소는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유가의 안정세를 점쳤으며, 산업연구원도 그 동안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된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

구 분	삼성연구소		LG연구소		I M F		World Bank		OECD		E I U	
	04	05	04	05	04	05	04	05	04	05	04	05
세 계	4.3	3.7	4.8	3.8	5.0	4.3	4.9	4.2	3.6	2.9	5.0	4.2
미 국	4.0	3.3	4.2	3.3	4.3	3.5	4.3	3.2	4.4	3.3	4.3	3.1
E U	2.2	2.2	1.8	1.9	2.2	2.2	1.8	2.1	1.8	1.9	1.9	2.2
일 본	3.9	2.4	3.1	1.4	4.4	2.3	4.3	1.8	4.0	2.1	4.2	1.8
중 국	9.2	8.6	9.3	8.0	9.0	7.5	9.2	7.8			8.9	8.1

☞ EIU: Economic Intelligence Unit

수급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급락세로의 반전은 기대하기 힘들나 적어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수요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의 불안 지속은 여전히 국제유가의 변동의 기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05년 유가는 배럴 당 35달러(두바이유) 내외로 유지될 것이라고 삼성연구원은 내다봤다.

요컨대, 05년 세계경제 흐름을 좌우할 요인은 국제유가, IT 경기,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 달러화의 움직임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으로는 이라크문제 등이 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변수를 감안할 때, 세계 주요국이 04년의 성장세를 잇지 못하면서 05년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경제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2. 국내 경제

05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와 원화 절상, IT 경기 하락 등의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요인들 때문에 수출성장세는 둔화하여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대폭 낮아지고, 게다가 민간소비에 있어서의 완만한 회복세와 설비투자에 있어서의 IT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회복세 약화, 그리고 건설투자에서의 지속적인 둔화 등으로 내수경기도 지속적인 하락세에서 그다지 크게 회복되지 않아서 국내 경제 성장에 있어서 낮은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각 경제 전문기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들은 05년 경제성장률을 3.5~4.6% 사이의 수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04년 내수 침체와 수출 증가율의 큰 폭 오름세에 따른 경기 양극화의 심화 양상과는 달리 05년에는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각 기관들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기 관 명	05년 경제성장률 전망
한 국 은 행	4.0%
한 국 금 용 연 구 원	4.6%
삼 성 경 제 연 구 원	3.7%
L G 경 제 연 구 원	4.1%
현 대 경 제 연 구 원	4.0%
한 국 경 제 연 구 원	4.1%
O E C D	4.5%
모 건 스 텐 리	3.8%
골 드 만 삭 스	4.0%
J P 모 건	4.0%
H S B C	3.5%

수출 증가율 전망

기 관 명	05년 수출 증가율 전망
한 국 은 행	9.8%
산 업 연 구 원	8.9%
현 대 경 제 연 구 원	9.5%
삼 성 경 제 연 구 원	9.3%
L G 경 제 연 구 원	8.0%
한 국 경 제 연 구 원	7.4%

전망하는 05년 수출 증가율은 10%미만으로, 이 같은 수출증가율 하락요인으로는 세계 IT경기 둔화, 원화 절상(환율 불안), 04년 급증에 따른 반사영향, 국제유가 불안 등이 꼽히고 있다.

각 경제기관들은 민간소비와 관련해서 경미한 회복을 점치고 있는데,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선행지표 움직임을 감안하여 1/4분기까지 가시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이나, 소비 회복의 걸림돌인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부터 소비회복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또한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의 내구재 소비지출 반등 등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미흡하고 소비부진의 구조적 요인도 상존해서 민간소비는 미미한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점쳤다.

설비투자는 04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LG연구소는 수출둔화에 따른 가동률 하락, 주력 IT 제품 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투자를 주도했던 IT 산업의 투자수요가 둔화되겠지만 대기업의 수익성 호조와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원화표시 수입자본재 가격 하락 효과, R&D와 연계된 투자계획 집행 등에 힘입어 04년 대비 비슷한 수치를 전망했고, 현대연구소는 장기간의 설비투자 부진에 따르는 설비투자 조정압력 확대, 환율 하락에 따르는 원화 구매력 증대 등의 투자 유인을 플러스 요인으로, 출자총액제도 등 제도적 여건의 개선 불투명, 내수 및 외수 시장의 동반 부진, 북한·미국간 갈등 고조에 따르는 투자 심리 위축 등을 설비투자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었다.

내수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의 회복은 05년에도 크게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전경련이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조사에서 기업들이 생각하는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미래 소득 불안, 과도한 가계부채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05년도 성장세의 흐름에 관해서는, 대체로 上底下高(상반기 저조, 하반기 완만한 상승)의 흐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내년 상반기까지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급격히 하락하다가 하반기에 들어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내수부문이 기술적 반등효과와 그 동안 억제되어왔던 수요 회복, 정부 경기활성화 대책의 효과

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LG연구소는 전망했다.

전경련의 BSI 조사 결과에서는, 우리경제의 회복 시기가 내년하반기 내지 06년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한국은행과 현대연구소는 경기저점이 05년 중반에 형성될 가능성을 점치며 'V'자형의 빠른 회복보다는 'U'자형의 완만한 회복세의 경기 국면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L'자형의 장기 침체의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 경제전망조사 결과 보고'에서 상당수의 경영자들이 현 경기침체상황은 3년 이상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고 응답을 하여 기업이 느끼는 향후 경기회복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대연구원 전망에 의하면, 자동차 산업은 내수부문에서 상반기 '신차효과', 하반기 '내수 경기 여건 개선' 등으로 판매 증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나 고유가 지속과 특소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은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상승세 둔화와 약세에 따르는 가격 조건 악화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부문에서는 해외 자동차 메이커들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 6% 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05년 노사관계는 어떠할까. 한국노동교육원에 따르면, 05년 노사관계의 주된 화두는 '세계경제침체로 인한 고용불안과 이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며 따라서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관련 문제와 법과 제도적 개선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 사회적 대화체제 복원의 시급성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100대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04년 말에 실시한 05년 노사관계 조사에서도 역시 많은 응답자가 05년 경제상황과 고용시장 상황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경기와 고용시장의 동반침체에 대한 높은 우려를 나타냈다. 05년도 노사관계는 04년에 비해 불안해 질 것이며, 비정규직 관련 법안, 노동계의 요구 증가, 산별교섭 추진, 구조조정 대 고용안정 요구,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조건 조정 문제 등이 05년 노사관계 불안의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05년도 노사관계에 다소 도움이 될 요인으로는 노동계의 투쟁양태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 경제상황 악화와 경제위기감 확산에 따른 노동계의 자제, 상급단체 주도의 총파업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 저조, 불법 분규에 대한 정부·사용자들의 강력 대처 등이 꼽혔다.

한편, 전경련이 500 주요기업을 조사하여 289개사의 응답을 받은 금년 1월 노사전망 조사에서는 약 45%의 응답자가 노사관계의 안정세를 점쳐, 상술한 경총 04년 12월말 조사와 비교하여 볼 때 한달 사이의 조사시점의 차이를 두고 기업의 노사전망이 다소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전경련조사에서의 노사관계 안정 전망의 요인은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변화, 노사공동의 경제위기 극복노력, 노사당사자의 성숙한 자세, 그리고 대화와 타협 분위기 등으로서 사회적 여론과 경제문제 등 외부 환경적 요인과 노사 당사자간 성숙된 모습이 점차 노사관계 안정요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과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법과 원칙의 적용 역시 안정기류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3. 환율전망

환율 예측은 경제 전문기관들이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사안이며, 따라서 환율 전망 자료는 많지 않다. 여기서 “2005년 환율전망과 외환위험관리” 라는 삼성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하고자 한다.

삼성연구소는 05년 환율전망에 있어서의 큰 두 가지 설정 변수를 ‘쌍둥이 적자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전제하고, 두 변수의 진행정도에 따른 4가지 환율전망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약한 달러 용인과 점진적 금리인상이란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중국도 3%선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연내 단행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점진적 약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평균환율 보다 183원 정도 낮은 연 평균 960원 수준이 될 것이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3% 안팎 수준으로 수출 증가율은 7.8%(지난해 31.2%)로 떨어지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69억 9천만달러(지난해 256억 3천만달러)로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환율과 금리에 대한 미국의 현 정책 기조가 유지되더라도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단행하지 않고, 국제 투기자본의 달러화 투매 현상이 벌어질 경우, 달러화는 급격한 약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도 평균 9백 20원 대로 급락한다. 이럴 경우 수출 증가율도 5.3%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상수지 흑자는 5억7천만달러로 급감, 국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게 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올해 달러화가 세계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로 반전하는 경우인데, 이는 미국이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중국이 위안화를

원/달러 환율전망

	상반기	하반기	05년 (연간)
시나리오 1	990원	930원	960원
시나리오 2	940원	900원	920원
시나리오 3	1,020원	1,100원	1,060원

15% 정도 대폭 절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1,060원 정도가 된다.

그리고 위안화 평가절상은 거의 없으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네 번째 시나리오이다.

삼성연구소는 05년 환율전망에 있어 첫 번째 시나리오의 흐름이 될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힘을 실으면서, 최근 상황을 과거 달러화 약세시기와 비교해 볼 때 추가적인 달러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동아시아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율 안정을 위한 한·중·일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며,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같은 거시정책보다는 수출기업 지원과 통상압력 강화에 대비한 통상교섭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원고 장기화에 대비한 경기 안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 맺 음 말

상술한 바와 같이 05년 주요 경제 연구소 및 기관들의 국내외 경기전망은 전반적으로 어두워 보인다. 이러한 경기저조 전망 분위기 속에서 현대연구소에서 발표한 “05년 한국 경제 7대 희망 요인과 과제”에서 한국경제가 05년에 기대할 수 있는 7가지 희망 요인을 들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부담 감소에 따른 소비 여력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이고, 둘째는 주요 투자 지표가 증가 조짐을 나타

내고 있어 향후 투자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04년 수준의 증가세를 기대할 수 없으나, 지역별 고른 수출 증가와 시장 점유율 상승 등과 같은 긍정적 요인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출 증가를 이룰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넷째는 금융자산 운용의 성향 변화 등으로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운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차세대 반도체 등과 같은 고기술 산업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 발전의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이며, 여섯째는 남북간 경협 사업 확대 등으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치·사회적인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으며 이는 05년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다.

05년 우리의 경제는 결코 쉽지 않은 여러 요인에 큰 영향을 받겠지만 현대연구소가 제시하는 일곱 가지 기대가 현실화될 것을 기대해본다.